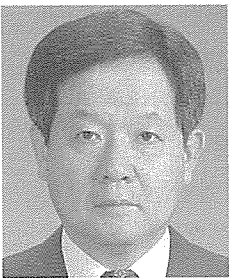




# 대한이비인후과학회 47년 창립 ... 전문의 2천2백여명 배출

1947년 창립된 대한이비인후과학회(www.korl.or.kr)는 50여년동안 꾸준히 성장해왔다. 지난 75년엔 학회운영을 이사장 중심으로 바꾸고 이번 임기중에는 개인이사를 신설하여 왕성한 학술활동을 펴고 있다. 올해까지 2천2백95명의 전문의를 배출한 대한이비인후과학회는 95년부터 대한청각학회 등 6개의 관련학회와 손잡고 종합학술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秋 光 哲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사장)

1947년 창립된 대한이비인후과학회는 50여년간 꾸준히 성장하여 지난 1997년에는 학회창립 5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거행하였다. 학회운영은 학회장 중심에서 1975년부터 이사장 중심으로 바뀌었고 이번 임기에는 개인이사를 신설하여 총무, 고시, 수련, 간행, 학술, 재무, 보험, 의무, 섭외, 기획이사와 더불어 11개 상임이사를 임명하였으며 임기 중간에 선임하였던 차기 이사장을 임기 초부터 선임하여 학회업무가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상임이사 밑에 13개의 위원회를 두어 모든 업무가 위원회에서 토의되어 상임이사회에 상정되게 위원회

를 활성화 하였으며 상임이사와 위원들은 모든 회원이 관심가질 수 있도록 대학과 지역안배도 배려를 하였다.

## 매년 봄 종합학술대회

학회의 중점 추진업무로는 의약분업에 대비하여 보험업무의 우선지원, 개원회원과의 유대관계 개선, 분기별 지부순회 학회주관 연수강좌, 대국민 홍보강화, 학회업무 전산화 작업과 홈페이지 개설 등을 열거할 수 있다.

1990년에 발족된 대한이과연구회, 대한두경부외과연구회, 대한비과연구회(1993년 비과학회로 개칭)는 이비인후과학회의 기간이 되는 모임으로 전공분야가 세분화되었고 이들의 활성화로 학회의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2000년에는 창립 10주년 행사에 연구회별로 세계 석학들을 초청하여 의미 있는 학술대회를 계획하였으나 의료대란으로 축소되었다. 1995년부터는 대한청각학회, 대한이과연구회, 대한비과학회, 대한기관식도과학회, 대한두경부외과연구회, 대한음성언어의학회 등 6개의 이비인후과 연관학회와 학술

대회를 통합하여 춘계 대한이비인후과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하여 2001년 4월 7차 대회까지 이끌어 오면서 학술대회의 수준이 급격히 향상되었다.

이외에도 다른 과와 합동으로 참여하는 유관학회에는 대한알레르기학회, 대한암학회, 대한레이저학회, 대한두경부종양학회, 대한갑상선연구회, 대한두개저외과학회 등이 있어 연중 끊임없이 학술대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많은 세부학회의 학술활동은 학문적인 면에서나 친목적인 면에서는 권장할 만하지만 대한이비인후과학회의 집중적 학술활동은 더욱 중요하므로 모학회와 분과학회 및 연구회와의 관계 정립은 중요한 사안이다. 금년까지 배출된 전문의 수는 2천2백95명으로 외과계열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많으며 전 의사 수에 대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비율이 1985년 7백68명(2.59%)에서 1988년 1천8백37명(2.82%)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 대비 이비인후과 전문의 수는 전문의 1인당 1998년 2만5천2백82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수련받고 있는 전공의 수도 91개 수련병원에서 1년차 1백46명, 2년차 1백25명, 3년차 1백67명, 4년차 1백59명 총 5백97명으로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어 적정한 수급계획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수련병원 전속 전문의 수 상향조정안을 통과시키고, 전공의 수련과정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수련병원 실태조사 강화와 전공의 자율평가고사의 보완,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전문의 시험의 운영과 개선책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종합병

원에서 이비인후과 환자의 분포는 전 병원 외래환자의 7~9%, 입원환자의 3~5%를 점유하고 있어 외래중심의 과로 인정되고 있으며 전문의중 80%를 차지하고 있는 개원의도 외래중심의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의료전달체계 변화에 따른 수련병원에서의 1차 외래환자의 감소는 전공의 수련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병원에서 개인병원으로 전공의 파견교육문제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보화시대에 알맞게 학회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전산위원회가 구성되어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홈페이지를 2000년 4월 10일 제작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가입회원, 방문자 수, 사용자가 늘어나 많은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고 있어 내용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학회 우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학회운영은 수련병원과 전공의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나 전 회원의 80%를 차지하는 개원의와 호흡을 같이하고 대화의 통로를 마련하기 위하여 상임 개원이사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개원의 진료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개원의의 적극적인 학회참여를 유도할 뿐 아니라 학회산하 8개 지부 와도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학회주관으로 1년에 4회 지부순회 연수강좌를 마련하였고 서울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학술활동이 지부회원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한다. 지부별 회원 수는 다음 <표>와 같다. 제주도의 회원 16명은 전남지부로 소속하여 있으나 지리상 업무연락

지부	창립연도	현회원(2001년)
부산·경남	1957. 3.	267명
전북	1957. 4.	64명
대구·경북	1957. 5.	222명
중앙	1957. 6.	1,029명
광주·전남	1960. 3.	143명
대전·충남	1965. 3.	99명
강원	1981. 12.	51명
충북	1995. 3.	34명
		총 1,909명

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제주지부 독립을 이사회에서 인준받아 창립준비중에 있으며 중앙지부는 너무 비대하여 대학병원이 있는 인천의 인하대학, 수원 의 아주대학을 교육병원으로 각각 분할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2000년 6월 18일에는 이비인후과 개원의 협의회가 결성되어 이를 계기로 개원의들의 정보교환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할 것이며 본 학회와 상호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 「귀의 날」 부활 무료검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약분업과 앞으로 고려되고 있는 포괄수가제 등은 회원들의 권익보호에 가장 중요한 사안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날로 증가하는 의료분쟁의 예방과 조속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의료분쟁 사례를 학술대회 순서에 포함하여 회원들에게 교육하는 시간도 늘릴 계획이다. 의료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방안의 하나로 대국민 이비인후과 홍보를 위하여 학회 초창기에 제정되었던 9월 9일 「귀의 날」을 부활하였으며, 금년 「귀의 날」 9월 9일이 일요일이었으므로 9월 6일로 당겨 국민들에게 귀 건강의 소중함을 일깨우

고 귀 관련 질환의 예방과 처치 및 재활방법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난청에 대한 조기발견과 치료에 대한 건강강좌, 무료상담, 보청기 무료증정을 서울 삼성동 섬유회관을 비롯한 전국 6대 광역시에서 같은 시간에 성대하게 시행하였다. 이 행사는 앞으로 매년 열릴 것이며 그 규모를 확산시킬 것이다.

2001년 가을에 개최되는 제75차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대회에는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해외 동포 이비인후과 의사들과 합동 학술대회를 준비중이며 이를 발판으로 상호간의 유대를 증진시키고 국제적 교류를 마련하고자 한다.

21세기 이비인후과학은 지난 1백년 동안 이론 업적에 비하여 더욱 빠르고 놀라게 변할 것이며 학문적인 발전 뿐 아니라 국내의 의료제도와 의료정책도 급변하여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응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알맞는 정보화, 전문화, 국제화된 대한이비인후과학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학회의 모든 회무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회보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모든 회원에게 알림으로써 열린 학회로 거듭나 회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회원들의 학회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시행되기 위하여는 상임이사진 뿐 아니라 전 회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모든 사업은 이사장의 임기와 관계없이 연속성을 가진 중장기 계획으로 전문위원회에서 토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㉞